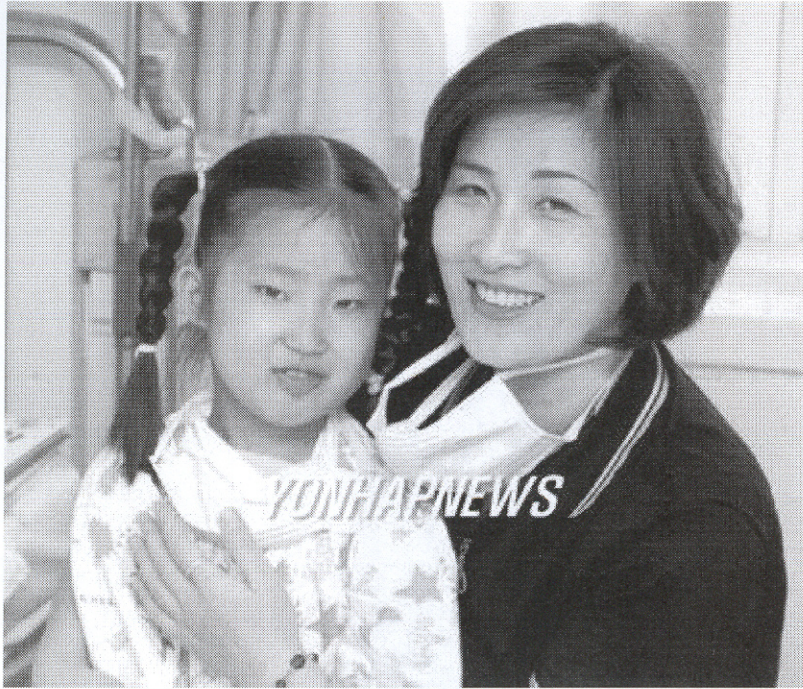


## <심장병으로 오빠·언니 잃은 소녀, 이식수술로 새생명>

[연합뉴스 2005-07-04 11:37]



↑ 새 생명 얻은 김소현양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심장병으로 오빠와 언니를 잃고 자신도 같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여자아이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완쾌됐다.

지난 4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딸 소현(8)양을 병원에 데려갔던 김익철(47)·이강심(44)씨 부부는 의사로부터 "딸이 심장이 커지면서 피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약화되는 병인 '확장성 심근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 부부에게 막내 소현양의 발병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소현양의 오빠(1996년·당시 10살)와 언니(2001년·당시 11살)가 이 병으로 유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

부부는 즉시 입원치료를 시작했지만 심장이 붓고 복수가 차는 등 소현양의 증상은 점차 악화됐으며 5월 말에는 심장기능이 거의 정지해 '심장(심실)보조장치'를 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는 보조장치일 뿐 소현양에게 심장을 이식해 줄 공여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오빠, 언니와 같은 운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초조한시간만 흐르던 지난달 7일 뇌종양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심장을 공여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의료진은 급히 수술 준비에 들어갔으며 5시간에 걸친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수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김용진 교수는 "공여자(A형)와 소현양(AB형)의 혈액형이 서로 달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수술 뒤 검사에서 거부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현양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다"고 전했다.

소현양의 부모는 지난 2001년 둘째딸이 같은 병으로 숨을 거두자 이 병을 고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심장을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아버지 김익철씨는 "제 딸에게 장기를 주신 기증자와 가족, 그리고 소현이를 수술하고 돌봐준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며 "장기를 주신 분의 숭고한 정신이 널리 알려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현양은 이식수술이 끝난 뒤 지금까지 면역거부반응 등 상태 관찰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돼 일반 병실로 옮겨져 퇴원을 앞두고 있다.